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성령강림주일(오순절)

오늘 주일(5.24) 오전 11시 예배는 성령강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3. 삼위일체주일 및 선교헌신예배(북한)

다음 주일(5.31) 오전 11시 예배는 삼위일체주일로 드립니다.
예배인도 : 이광근 안수집사

4. 구역예배

일시 : 2026년 5월 28일(목) 오후 3시 (교회출발 2:00)
장소 : 정현숙 권사
다음 : 임명자 집사

5. 아하브코업 홈스쿨

아하브코업 홈스쿨 5월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일시 : 2026년 5월 26일(화) 오전 10:20 ~ 오후 3:30
장소 : 주사랑교회 본당.

6. 2026년 5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3.15 ~ 4.15)

5.27(수) 문재효 형제 5.27(수) 임명자 집사(-4.11) 5.28(목) 박수진 자매

가정과 사랑의 달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5/24	부부 주일 / 가정의 주일 성령강림주일 / 성결교회주일
05/25	경가서자방회 체육대회
05/26	아하브코업 홈스쿨 5월 정기모임
05/30	삼위일체주일 / 선교헌신예배
06/01	찾날맞이 일석예배 (성전)
01~05	나라와 민족을 위한 호국기도회
06/03	제 9회 정국동사자방선거
06/06	산상기도회(잔향)기념 순교자배
06/07	농어촌 선교주일 여름사역 위한 준비모임
06/14	환경주일
06/21	특수전도주일
06/28	통일선교주일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 ▶정자동(10:00) ▶화서동(10:10) ▶세류동(10:20)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정자동(13:40) ▶화서동(13:50) ▶동탄(14:20)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령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당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당 후 진행)		
쉐 마 학 당	(상당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05/24	이광근 안수집사
05/31	임명자 집사
06/07	임명숙 집사
06/14	김혜숙 권사
06/21	정현숙 권사
06/28	박제연 집사
07/05	이광근 안수집사
07/12	임명자 집사
07/19	임명숙 집사



주사랑 9권 21호 | 2026년 5월 24일
창립 2017.11.25 | 성령강림주일 / 부부의 주일
기 독 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성령강림절 / 부부주일) 인도: 한승훈 담임목사

- ※ 목 도 요 16:13, 행 1:8 인 도 자
- ※ 송영찬송 찬 183장 다 같 이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 ※ 사도신경 다 같 이
-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 성시교독 No.83 발립보서 4장 인도자/회중
- 찬 송 가 찬 190장 다 같 이
(성령이여 강림하사)
- 대표기도 이광근 안장사
(남전도회장/재정부장)
- ※ 성경봉독 사도행전 2:1~4 (신 188) 이광근 안장사
- 광 고 인 도 자
- 말씀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담임 목사
- 봉헌찬송 찬 191장 다 같 이
(오병이어헌신 : 한은총 자매)
- ※ 축 도 담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일에 직접 드립니다 / 입금: 2026.05.23. AM 6:00 기본)

- 십 일 조 : 한성결
- 주정현금 : 문재효 박제연 이광근 이다남 임명숙 임명순 임명자 정현숙 한승훈
한희락 / 이가을
- 감사현금 : 이광근 박제연(자녀) 전복순 한승훈(생일) 한승훈 임명순 무명1
-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희 이재아 임명순 한은총 한성결 한태민
- 구역현금 : 박제연 임명순
- 선교현금 : 오동영 임명숙 한은총
- 구제현금 : 이광근 박제연
- 건축현금 :
- 후원현금 :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주 일 오 후 예 배

오후 1:30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마태복음 24:44-51 (신 41)
말씀제목 자혜 있고 충성된 종들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 요 저녁예배

오후 7:30 (조직신학)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마가복음 1:15 (신 308)
말씀제목 조직신학 : 회개와 믿음

목 요 구역예배

오후 15:00 말 은 이
성경봉독 열왕기하 20:12-21 (구 598)
대표기도 말 은 이
말씀제목 은혜를 지속적으로 자는 삶

금 요 심야기도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20:19-23 (신 183)
말씀제목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의 찬

새벽 기도회(월~금)

새벽 5:30 사무엘상 묵상
24일(월) 마 24:44-51 자혜 있고 충성된 종들
25일(월) 삼상 8:10-22 왕의 제도를 가리켜
26일(화) 삼상 9:1-4 왕의 자비를 갚은 사울
27일(수) 삼상 9:5-14 사무엘을 만난 사울
28일(목) 삼상 9:15-24 사무엘이 본 사울의 겉손
29일(금) 삼상 9:25-27 기쁨 부어 왕이 된 사울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⑥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권면했나요?
(딤후 6:11~12)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와 ()과 ()과
()과 ()와 ()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⑦ 사도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소개하나요? (딤후 1:5-8)

이는 네 속에 ()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로이스와 네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을 확신하노라

⑧ 사도 바울은 순교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어떤 각오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나요? (딤후 1:7-8)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과 ()과
()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감히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을
받으라

⑨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교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하였나요? (딤후 2:3~4)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⑩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했나요? (딤후 3:21~22)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
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와 ()과
()과 ()을 따르라

(작성하신 답안은 주보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사건에 축복기도를 해드립니다)

국내선교(오주교우회소속)



해외선교(모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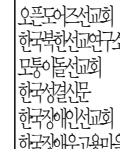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탈북민선교(평화나루교회)



기타 기관 선교



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교회의 성도들을 대면할 때 어떤 자세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딤후 5:1~3)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에게 하듯 하라 ()인 과부를 존대하라

② 사도 바울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들의 삶을 성전에서 극진히 돌보되 과부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권면하나요? (딤후 5:5~6)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와 ()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③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친족을 돌보지 않고 교회에만 생계의 짐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나요? (딤후 5: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은 ()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니라

④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공동체 안에서 신분을 초월한 형제애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전과 종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나요? (딤후 6:1~2)

무릇 명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지나친 탐욕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딤후 6:8~10)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를 찢렸도다

모로코 기도편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1~2, 6)

매월 1일 모로코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11:1). 이곳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슬람이 삶이 되어버린 이들의 인생을 보며 참된 진리가 이들에게 흘러 갈 수 있을까? 생각이됩니다.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는 기도와 은혜의 능력이 모로코에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모로코는 먼 땅입니다. 서쪽 땅 끝입니다. 비행기를 2번 타야하고, 꼬박 하루가 걸려 도착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로코를 모나코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모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밟고 함께 오닐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빛과 영광이 임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하며, 우리 안에도 다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어집니다.

2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저희도 이 땅에서 더 스며들어가며, 더 깊게 뿌리 내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딸 소리 학교친구를 저희 가족이 데리고 밖에 나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들과 함께 자라며, 이들과 함께 깊게 살아가며, 이 안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세대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부탁드립니다.

비자 여행을 다니며 90일 관광비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확실한 허락은 아니기에 살아가며 위축되는 면도 있습니다. 비자의 어려움이 있는 이주민들, 불법 체류자들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비자를 얻기 위한 비즈니스를 준비하며, 한국 분식 컨셉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적인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이 거의 없고, 발품을 팔며, 계속 다녀야 합니다. 예비 된 장소가 구해지길 기도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비즈니스가 계획되며 더 나누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데 체력적으로 강건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가정과 이 땅을 기억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722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유	왕하 17:5-23
찬송가		찬 287장	다	720	사마리아의 앗수르 이주민들	왕하 17:24-41
대표기도		말은	이	715	남유다 히스기야의 등극	왕하 18:1~16
성경봉독		왕하 21:1~18	윤독	701	신해람에 의한 앗수르의 3차 침공	왕하 18:17~37
말씀인도		말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과 하나님의 응답	왕하 19:1~37
합심기도		다	같이		병든 히스기야를 치료하신 하나님	왕하 20:1~11
헌금기도		말은	이		바벨론 사절단의 의도적 방문	왕하 20:12-21
주기도문		다	같이	697	남유다 므낫세왕의 등극	왕하 21:1~18

■ 들어가는 말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세에 왕이 되어 총 55년간 남유다 왕국을 통치합니다(BC 697~642). 므낫세 왕의 통치 말미의 얼마를 제외하면(대하 33:10~16)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악을 위해서 매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악정 때문에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천명하십니다.

무엇이 문제고 그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올바른 신앙의 유지입니다(1~7).

므낫세는 남유다 왕국을 55년간 최장기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므낫세 왕의 통치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2). 므낫세의 통치 초기 10년은 그의 부친 히스기야 왕과 공동통치를 했습니다(BC 697~686). 므낫세가 12세에 등극하여 어렸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과 15년의 생명 연장 약속을 받았을 때, 므낫세는 7~8세 정도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12세부터 통치 전반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를 두었지만,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할아버지의 악행을 따랐습니다(왕하 16:3~7).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영적 개혁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왔고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가 쫓아낸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일들을 따랐는데, 이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던 죄악들입니다(17:15~17).

므낫세의 부친 히스기야는 선왕들이 손도 대지 못했던 산당들까지 모두 제거했지만, 므낫세는 다시 산당을 재건했습니다(3). 특히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 제단을 세우고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일월성신을 경배했습니다(3). 므낫세의 우상숭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조차 행했습니다(4). 저자는 그가 제단들을 쌓은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가 친히 그의 이름을 둘 것이라 약속한 곳’임을 상기시킵니다(4).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거룩하고 정결한 처소를 부정하게 만든 그의 죄가 얼마나 크고 엄중한지를 고발한 것입니다. 또한 므낫세는 성전 안뜰과 바깥뜰인 두 마당에서 일월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런 악행은 아하스가 여호와와의 성전에 이방 제단을 설치하고 성전 기구들을 배치하고 훼손한 행위들임을 연상시켜줍니다(왕하 16:10~18). 므낫세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이 제정한 예배를 이방 제의와 혼합하여 남유다 왕국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 악행이었습니다. 아하스처럼(왕하 16:3) 예루살렘 서쪽과 남쪽 골짜기인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왕하 23:10). 이런 관습은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엄히 금지시킨 죄였습니다(레 18:21, 레 20:1~5). 아하스나 므낫세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았음을 암시합니다. 게다가 므낫세는 점과 사술을 행했고, 가증한 무당과 박수들을 상대했습니다.

어찌 가장 위대한 신앙의 가문에서 가장 불신앙적인 사람이 자랄 수 있던 말인가요? 선대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혁은 한 번에 다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을 유지하고 전승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지 못하면 자녀들의 신앙은 피상적으로 굳어지게 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끊어진 가장 불경건한 다른 세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누구의 책임일까요?(8~15).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7).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려고 지정한 장소이며,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한 처소이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한 곳임을 뜻합니다(왕상 9:3).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모세의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명령한 것입니다(출 19:5~8). 그들이 순종하면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할 것이며,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끊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 성별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왕상 9:6~7).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므낫세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진멸한 이방 족속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왕이 우상숭배에 앞장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네 가지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12~15). 첫째 재앙의 소식으로 듣는 자들의 귀가 떨릴 것입니다. 재앙이 확정 되었으니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평안함이 없을 것이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의 집의 주’를 예루살렘에 던질 것입니다(13). 줄과 주는 본래 ‘건축’의 길이를 재고, 수평을 맞추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허물 때’ 사용되는 도구가 될 것이며, ‘궁궐’의 줄과 ‘의’의 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사 28:17). 이는 혼란과 공허를 상징하는 심판이 임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셋째, 사람들이 그릇을 말끔히 닦아 얹어놓듯이 예루살렘을 닦을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을 완전히 파괴하고 백성을 남김없이 쓸어버릴 것을 뜻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기업인 유다의 ‘남은 자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어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의 말씀은 그들이 선지자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반복하여 악을 행한 결과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진 것은 누구의 책임 일까요? 모든 일을 주도한 왕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계속 거절한 백성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에 퍼지듯, 위아래 모두 부패했습니다. 모두가 죄악의 상황을 직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므낫세는 하나님의 심판 일환으로 앗수르 포로로 바벨론 지역에 잡혀 갔으나, 회개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대하 33:11~13). 그는 돌아와 우상과 제단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제사하는 등 선을 행했습니다(대하 33:15~16).

히스기야의 개혁이 그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을 ‘자기 시대’에 주님을 섬기고 죽은 자로 묘사했습니다(행 13:36). 선한 영향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시대’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것만이 대안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양육해야 합니다.